

慶南地域 農村 衣·食·住生活 樣式에 關한 調查 研究

A study on Rural Clothing, Dietary, Housing Style of
Living in Kyeong-Sang-Nam-Do.

密陽農蠶專門大學, 農家政科
助 教 授 柳 浩 景
農家政科

助 教 授 吳 喜 仙
農業建築科

助 教 授 李 鎬 洵

Dept. of Agr. Home Economics

Miryang National Junior College of Agriculture and Sericulture

Assistant Prof.; **Ho-Kyoung Ryu, Hui-Sun O**

Dept. of Agr. Architecture

Assistant Prof.; **Ho-Yeol Lee**

< 목 차 >

I. 서 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및 고찰

IV.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 Abstract >

This study is proposed to research the rural clothing, dietary and housing style of living in order to adapt a basis which is supposed to improve the quality of rural life. The sample in this research comes from Daehang 1 Li, Bubuk Myun, Miryang Gun, Kyungnam,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ing;

Generally rural housewives are unconcerned with fashion or its information, instead, they care for the casual wear which represents economic and active life style. Because of their financial problems, in purchasing, they spend only a small money without plan. When they launder clothes, they use washing bat and panel which is easy to break fabrics, and they ineffectively use to dry it by hands twisting.

The total food intake per person in a day is 1170.6 gram, and all nutrients intakes except fat and calcium exceed the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s. But 90.3% of the food intakes are plant food, and the average food items taken per day per household is 11.9

items which are not so various; which represents the shortage of the nutrient quality. Both the nutrition knowledge score and the food habit score are very low. Therefore, in order to enhance the quality of clothing and diet in rural life, they need to learn clothing and nutrition management for their enlightenment.

The most comprehensive type of farmhouse site plan take the shape of Γ and \perp , and for the most part main building is the floor plan which includes 3-4 spans in front of the change from the type of traditional house, through the revised one, to the type of newly built house. In main building of the farmhouse, kitchen, Kunbang and Chakunbang are extended to their real space, and both utility and the bathroom are added to build, and Malu is transformed into the living space.

I. 서 론

한국의 농촌은 전근대적인 영농방식과 낮은 소득으로 인한 빈곤, 반봉건적인 풍습이 가져온 비위생적, 비합리적인 생활양식에서 탈피하지 못하여 제반 생활환경은 열악하기 그지 없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의 공업화 추진에 의한 산업의 근대화과정에서 공업의 발전과 비교하여 농업은 상대적으로 정체하여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제조건에 있어 더욱 심화되었다. 또한 자립경제체제 확립을 위해 농업기술 혁신에 의한 생산량의 증대에 일차적 목표를 두었으므로 전반적으로 농촌생활개선은 등한시되어 왔다.

생활양식이란 의식주를 포함해서 사회 생활, 경제 생활, 종교생활 등 일상생활에서 일년을 주기로 하거나 일생을 주기로 하는 생활방식으로 外的으로 표현된 행동이나 행위뿐 아니라 그러한 모든 인간의 행동양식을 지배하는 內的으로 통합된 어떠한 체계를 말한다¹⁾.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의식주생활양식은 外的으로는 산업화의 영향으로 다양한 피복소재의 개발, 용도와 기능에 따른 의복착용, 세제와 세탁법의 개발, 식품종류의 다양화, 조리법 및 조리기구의 개발, 가공식품의 보급확대, 다양한 건축재료 및 공법의 발달, 住宅의 기능적·합리적 공간구성 추구 등의 많은 변화가 있어 왔으나 농촌의 경우 이러한 외적인 변화에 대해 농촌사회의 전통적·보수적 성향으로 內的 변화욕구가 낮은데다 농촌의 낮은 교육수준, 경제적 어려움, 새로운 정보와의 접촉기회부족등의 요인으로 현재도 농촌의 의식주생활양식은 매우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상남도 밀양군의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의·식·주생활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전반적인 농촌생활개선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의복은 신체보호 기능에서 뿐만 아니라 미적표현을 포함하여 인간과 밀접한 일부분으로 각 개인의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간접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의복의 선택기준으로는 나이²⁻⁴⁾, 소득수준⁵⁻⁷⁾,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지적되고 있다.

의복은 사용도중 피로와 손상을 받게 되므로 피복관리로 손상을 줄이고 수명을 연장시켜야 한다. 그러나 관리의 잘못으로 인한 소비과정에서의 사고는 빈번한 실정이다.

이러한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의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조사·연구⁸⁻¹⁵⁾되고 있으며 농촌을 대상으로¹⁶⁻¹⁷⁾ 한 연구는 대단히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합리적인 의복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농촌 의생활 실태의 종합적인 분석 파악이 요구된다.

지역 사회 영양의 일차적 목적은 질병 예방과 양호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이다¹⁸⁾. 이러한 정상적인 영양상태를 위해서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식품의 섭취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또한 생활환경의 제요인이 적절하게 조화되어야 한다²⁰⁾.

한국의 전반적인 영양문제로 지적된 사항들은²³⁾ 영양소 섭취의 질적인 균형문제, 국가정책 차원의 문

제, 소득계층별, 또는 지역간의 불균형 문제, 성인병 및 소아비만의 증가 등인데, 이 중 특히 농촌 영양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영양소의 질적 균형 문제와 지역간의 불균형 문제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해당지역 주민의 영양상태 평가와 그들의 식품 및 영양에 관한 태도, 식생활 개선시의 문제점 파악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농촌 지역의 주거는 주택의 양식, 평면 구성, 설비 등으로 볼 때 도시 주택에 비해 주거의 질적 수준이 극히 저하된 실정이다. 따라서 농촌 주택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탐색하고 이것으로부터 바람직한 주거환경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선행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시도되었는데, 그 하나는 전통적인 농촌주택에 내재되어있는 고유한 주택공간구성의 특성을 규명하여 농촌주택개량 및 생활환경개선의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농촌의 일상·비일상생활을 조사하여 공간과 행위를 물리적인 면과 생활적인 면에서 분석하여 농촌주민의 요구에 맞는 공간 구성을 밝히려는 것이 그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의 형태와 사회의 구조적 변화화는 필연적 대응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농촌 근대화로 인한 농촌 주거의 형태적·공간적 변화를 규명하려한 것이다. 아울러 현재의 농촌주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주거를 변용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농촌주민 요구에 맞는 개량주택의 공간 구성은 어떤 것인지를 밝혀 보려고 한다.

II. 연구 방법

1. 조사지역 선정기준 및 개관

조사 지역은 다음의 기준에 맞추어 선정되었다. 첫째, 전통 생활양식을 비교적 잘 간직된 농촌 마을로 오래되었으면서도 변화가 적은 마을일 것, 둘째, 전통적인 민가가 되도록 많이 남아있는 마을로서 시기별로 신축된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마을일 것, 셋째, 조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찰이 용이한 마을로 규모는 50호 미만으로 조사연구 능력이 집중될 수 있는 마을이어야 할 것, 넷째, 人口 10만 미만의 농촌 중심도시(定住생활권중심지)의 배후농촌지역으로 농촌 특유의 생활양식이 많이 잔존되어 있는 마을일

것 등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경남 밀양시에서 北西쪽 7km 지점에 위치한 경남 밀양군 북북면 대항리가 유의 선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 마을을 집중적으로 사례연구한 것이므로 전체 농촌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마을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년전에 牙山 蔣氏에 의해 개척된 총 호수 48戶의 동족마을로 전부가 전업농가이다. 마을의 성씨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마을의 성씨 구성

성씨 호수	牙山 蔣氏	金每 金氏	善山 金氏	丹陽 禹氏	密陽 朴氏	計
戶	41	2	1	3	1	48*

*주택수는 48호이나 현 거주 가구수는 44가구이다.

농업 형태로 보면 대부분 畝作과 시설 원예에 의해 고추를 재배하고 있으며 호당 1000평에서 3000평까지의 경영규모를 갖는 자작농가가 대부분이다.

마을 공동 시설로는 마을 회관, 공동 빨래터, 공동 창고등이 있는데, 마을 공동의 대소사는 마을 회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마을 한 복판을 흘러가는 작은 개울에 있는 공동 빨래터는 현재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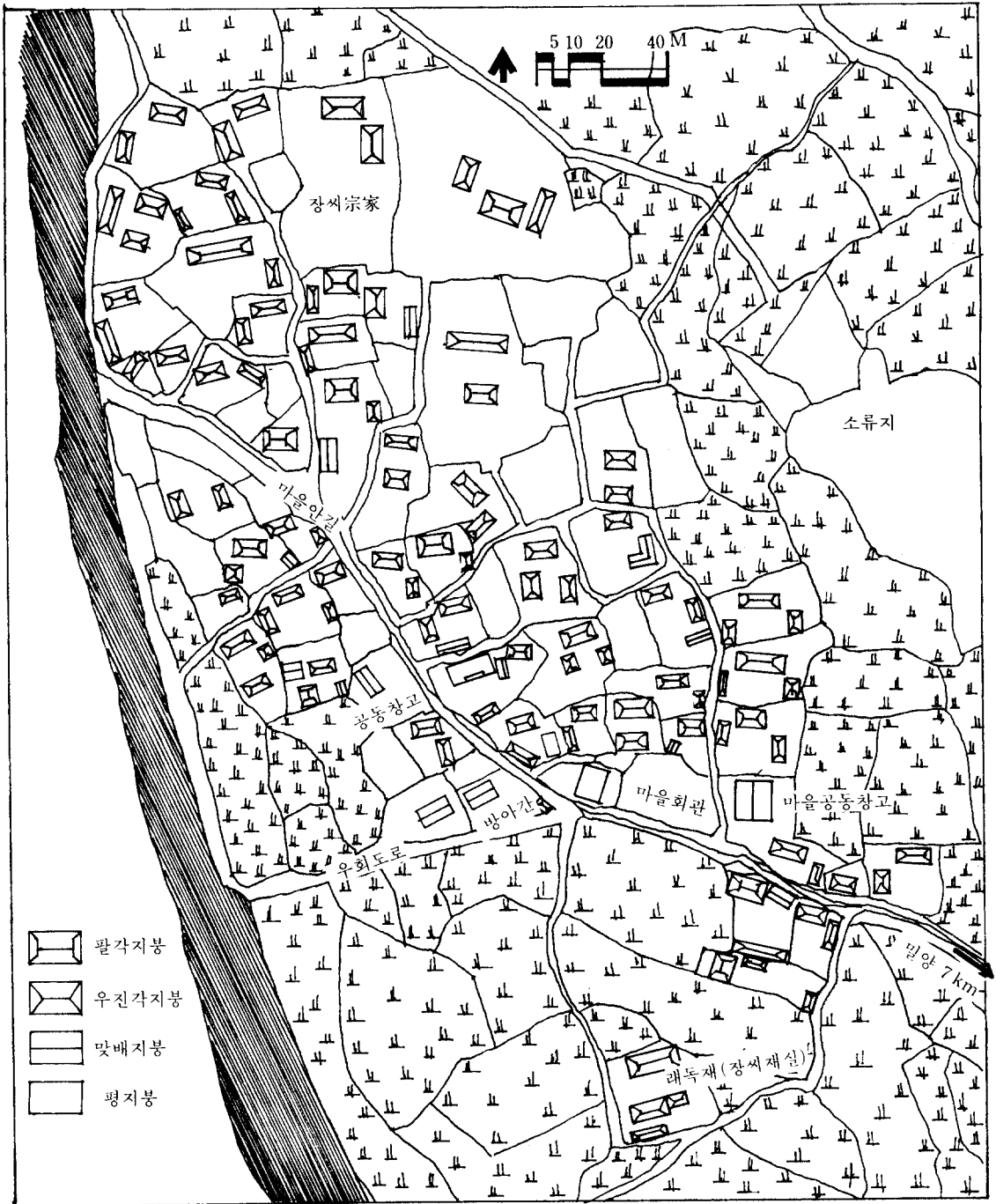
마을은 비교적 넓은 U형의 구릉지에 둘러싸여 있는 평지 마을로 동·남쪽으로 농경지가 펼쳐져 있다. 마을은 중앙의 주도로로 양분되고 대부분의 농가는 남동 또는 남서향하여 전면의 농경지를 바라보며 비교적 넓은 대지에 배치되어 있다(그림 1 참조).

조사 대상 지역의 가족원수, 가장의 직업, 성별 및 연령별 구성, 학력, 주부의 연령, 소득 수준은 <표 2>와 같다.

2. 조사 방법

1) 의생활 양식에 관한 조사는 1989년 10월 1일 ~ 15일의 15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의복을 직접 구입·관리를 담당하는 주부로 선정하였으며, 가치관, 구입, 세탁, 관리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자가 직접 방문 조사하였다. 전체 44가구 중, 40가구의 설문지를 최종 자료처리에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별 백분률로서 비교 분석하였다.

2) 식생활 양식에 관한 조사는 1989년 5월 17일



[그림 1] 마을 배치도

~19일의 3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조사대상가구는 마을 전체 44가주 중 1인 거주가구

(10가구), 조사불능가구(2가구)를 제외한 32가구가

다. 1인 거주가구의 경우 대부분 여자노인 혼자 거주

<표 2> 조사 대상 지역의 일반 사항

상항변수	집 단	N(%)		
가족원수 (가 구)	1인	10(22.7)		
	2인	16(36.4)		
	3인	7(15.9)		
	4인	5(11.4)		
	5인	3(6.8)		
	6인	2(4.5)		
	7인	1(2.3)		
	계	44(100.0)		
가장의 직업 (가 구)	농 업	38(86.4)		
	비 농 업	4(9.1)		
	무 응 답	2(4.6)		
	계	44(100.0)		
성별 및 연령 별 구성(명)	연 령	남	여	계
	0~19세	12 (48.0)	13 (52.0)	25 (100.0)
	20~39세	5 (45.5)	6 (54.5)	11 (100.0)
	40~59세	19 (47.5)	21 (52.5)	40 (100.0)
	60세이상	15 (35.7)	27 (64.3)	42 (100.0)
계	51 (43.2)	67 (56.8)	118 (100.0)	
학 령 (명)	학 령	가구주	주부	계
	무 학	13 (36.1)	22 (51.2)	35 (44.3)
	국 졸	16 (44.4)	17 (39.5)	33 (41.8)
	중 졸	6(16.7)	3 (7.0)	9 (11.4)
	고 졸	1 (2.8)	1 (2.3)	2 (2.5)
계	36 (100.0)	43 (100.0)	79 (100.0)	
주부 연령 (명)	20~39세	5(11.6)		
	40~59세	21(48.8)		
	60세 이상	17(39.5)		
	계	43(100.0)		
년 소 득 (원)	300만원이하	28(63.6)		
	300~500만원	11(25.0)		
	500만원이상	5(11.4)		
	계	44(100.0)		

하고 있었으므로 식생활 실태 조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전체의 영양상태 파악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제외하였으며, 조사불능가구는 비협조가구 1가구와 특이한 식사형태(모든 식품을 생으로 갈아서 생식)를 가진 가구이다.

식품섭취실태는 전 가족을 대상으로 3일간 피조사자가 섭취한 모든 식품을 주부저울(경인산업기기(주), 최대측정치 2kg)을 사용하여 실측하였다. 섭취한 식품은 농촌영양개선연수원의 식품성분표³⁷⁾를 data-base로 한 농촌진흥청의 영양소 섭취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체위조사로는 식품섭취실태조사의 마지막 날에 체중과 신장을 측정하였다.

영양지식, 식습관 및 기타 식생활 양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조사는 미리 작성된 조사표를 사용하여 주부들을 직접 면접하여 조사하였다.

3) 주생활 양식의 연구는 먼저 국립지리원 발행 지형도(축척 1/50000)와 지적도(축척 1/1200)를 바탕으로 마을의 주택 배치도를 실측작도한 다음 마을의 전호수 48호를 대상으로 배치평면도(축척 1/200)작도와 사진촬영을 실시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주거의 일반적 특성과 공간이용형태에 대해 면접조사하였다. 마을의 연혁과 일반상황에 대하여는 그 마을의 대표자인 이장으로 부터 협조를 받아 조사하였다.

끝으로 다른지역 농촌주택과의 비교를 위해 관련 분야의 문헌을 참고하였다.

조사 기간은 1989년 5월 부터 10월까지이며 연구보조원 2명과 더불어 5차에 걸친 예비, 실측, 人文, 보완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1. 의생활 양식

1) 가치관

가치관이란 사람이 값지게 생각하는 관점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의 생애 있어서 어떠한 측면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나 하는 점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농촌 주부의 패션에 대한 감각, 개성화 경향, 화장에 대한 의식, 의복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³⁸⁾의 질문지를 이용하여 각각의 한 쌍의 질문에 하나씩 응답하게 하였다.

<표 3> 의복 가치관

구분	항 목	N(%)
패 션 감 각	모양을 내는 편이다.	2(5.0)
	모양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38(95.0)
	계	40(100.0)
	새로운 유행이나 패션을 빨리 받아들이는 편	1(2.5)
	새로운 패션이나 유형에 관심이 없는 편	39(97.5)
	계	40(100.0)
	매스미디어의 패션정보에 관심이 강함	4(10.0)
	매스미디어의 패션정보에 관심이 없음	36(90.0)
	계	40(100.0)
	주위 사람보다 취향 뚜렷한 옷을 입을	4(10.0)
	주위 사람보다 별난 옷을 입지 않음	36(90.0)
	계	40(100.0)
	옷과 구두등에 뚜렷한 개성이 있다	6(15.0)
	옷과 구두등에 뚜렷한 개성이 없다	34(85.0)
	계	40(100.0)
화 장 에 대 한 인 식	화장이나 머리 손질에 신경쓰는 편	8(20.0)
	화장이나 머리 손질에 신경 쓰지 않는 편	32(80.0)
	계	40(100.0)
	성형 미용, 특별히 신경쓸일 아니다	23(57.5)
	보통사람이 성형미용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	17(42.5)
	계	40(100.0)
	여러 종류의 화장품을 고루 갖추고 있다	2(5.0)
	화장품은 별로 많지 않은 편이다	38(95.0)
	계	40(100.0)
	뚜렷한 느낌의 화장을 좋아하는 편	8(20.0)
	자연스러운 느낌의 화장을 좋아하는 편	32(80.0)
	계	40(100.0)
	국산 화장품 외제에 비해 떨어진다	3(7.5)

의 복 에 대 한 태 도	국산 화장품 외제에 비해 손색이 없다	37(92.5)
	계	40(100.0)
	매일 입는 옷에 신경쓰는 편	1(2.5)
	매일 입는 옷에 신경쓰지 않는 편	39(97.5)
	계	40(100.0)
	캐주얼 웨어를 더 많이 갖고 싶다	33(82.5)
	포어멀 웨어를 더 많이 갖고 싶다	7(17.5)
	계	40(100.0)
	오래된 옷 손질해서 입을 때가 많다	33(82.5)
	오래된 옷은 거의 입지 않는다	7(17.5)
	계	40(100.0)
	옷은 색깔·스타일등을 중심으로 선택	23(57.5)
	옷은 소재와 만들새를 중심으로 선택	17(42.5)
	계	40(100.0)
	옷의 조화에 신경을 쓰는 편	6(15.0)
옷의 조화에 무감각한 편	34(85.0)	
계	40(100.0)	
옷치장에 돈을 들이는 편	0(0.0)	
옷치장에 돈을 들이지 않는 편	40(100.0)	
계	40(100.0)	
외출시에 정장을 주로 하는 편	0(0.0)	
외출시에 편한 옷을 주로 이용하는 편	40(100.0)	
계	40(100.0)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 <표 3>이다.

① 패션에 대한 감각

모양, 유형, 패션 정보에 관한 관심이 5.0, 2.5, 10.0(%)로 나타나 패션 감각이 민감하지 못한 것 같다.

② 개성화 경향

개성화 경향을 묻는 설문에서도 주위 사람보다 취향이 다른 옷을 착용, 옷·구두등의 개성이 각각 10.0, 15.0(%)로 응답하고 있어 개성이 뚜렷하지 않았다.

③ 화장에 대한 인식

화장이나 머리 손질의 관심, 화장품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진한 화장이 각각 20.0, 50, 20.0(%)로 화

<표 4> 의복 구매

조사대상	항 목	N(%)
구매 계획	정기적, 계획	1(2.5)
	비정기적 계획	13(32.5)
	계획하지 않음	26(65.0)
	계	40(100.0)
구매 횟수 (1년간)	3 회 미만	30(75.0)
	4 ~ 5 회	9(22.5)
	6 ~ 10회	1(2.5)
	10회 이상	· (0.0)
	계	40(100.0)
구입 장소	시 장	36(90.0)
	백 화 점	2(5.0)
	양 품 점	2(5.0)
	고급 기성복점	· (0.0)
	상설 할인매장	· (0.0)
	계	40(100.0)
구입 시기	기분이 좋을때	1(2.5)
	기분이 나쁠때	1(2.5)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기위 해	1(2.5)
	충동적으로	· (0.0)
	돈이 생겼을때	19(47.5)
	옷이 필요할때	15(37.5)
	마음에 드는 옷이 눈에띄때	1(2.5)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 (0.0)
	기 타	2(5.0)
	계	40(100.0)
구입시의 동반자	혼자서 한다	28(70.0)
	자녀와 함께 구입한다	6(15.0)
	친구와 함께 구입한다	3(7.5)
	남편과 함께 구입한다	3(7.5)
	계	40(100.0)
구입시 중요한 점	기성복 메이커의 유명도	· (0.0)
	색채·무늬	11(27.5)
	디자인	5(12.5)
	가격	16(40.0)
	바느질	5(12.5)
	판매원의 권유	1(2.5)
	세탁의 용이함	2(5.0)

의복비의 출 처	계	40(100.0)
	본 인	18(45.0)
	남 편	14(35.0)
	자 녀	7(17.5)
	친 척	1(2.5)
월평균 의복비	계	40(100.0)
	1만원 미만	16(40.0)
	1만원~2만원	11(27.5)
	2만원~3만원	5(12.5)
	3만원~4만원	· (0.0)
	4만원~5만원	1(2.5)
	5만원~10만원	1(2.0)
10만원 이상	5(12.5)	
무 응 답	1(2.5)	
계	40(100.0)	
1 벌당 구매 가격	1만원 미만	17(42.5)
	1만원~2만원	7(17.5)
	2만원~3만원	12(30.0)
	3만원~4만원	1(2.5)
	4만원~5만원	2(5.0)
	5만원~10만원	1(2.5)
계	40(100.0)	
색채·디 자인 선정 동 기	진열을 보고	16(40.0)
	행인을 보고	· (0.0)
	친지·이웃의 권유로	5(12.5)
	의상잡지등 책자를 보고	2(5.0)
	디자이너·판매원의 권유로	2(5.0)
	광고를 보고	1(2.5)
	스스로의 구상으로	13(32.5)
	기 타	1(2.5)
	계	40(100.0)
	구입시 문제점	사 이 즈
다 자 인		2(5.0)
색·무늬		3(7.5)
가 격		22(55.0)
옷감의 질		3(7.5)
기 타		2(5.0)
계		40(100.0)
구입후의 만족도	항상 만족	11(27.5)
	대체로 만족	18(45.0)
	대체로 불만	10(25.0)
	항상 불만	1(2.5)
	계	40(100.0)

장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으나, 성형비용에 대해서는 괜찮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57.5(%)로 부정적인 견해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산 화장품에 대한 신뢰도는 92.5(%)로 대다수의 주부가 국산 화장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④ 의복에 대한 태도

의복에 대한 태도는 7가지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 매일 입는 옷에 대한 신경, 옷의 조화, 옷치장에 돈을 들인다는 대해서는 2.5, 15.0, 0.0(%)로 무관심하게 나타났으나 옷의 선택에 있어서는 색깔·스타일을 중시하고 있다.

농촌 주부의 대부분은 정장보다 캐주얼 웨어를 선호하고 있어 활동적인 의복을 요구하고 있으며, 오래된 옷도 손질해서 착용한다고 응답한 주부가 전체의 85.0(%)로 검소한 소비생활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치관과 의복행동 사이에는 상당히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며, 가치는 시대와 연령 등에 따라 변화하나, 의복행동은 가치관으로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다.

2) 의복 구매

의복 구매에 관한 조사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의복 구매 뿐만 아니라 건전한 소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계획은 중요한 일이다. 의복의 구매 계획에 관한 조사에서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비정기적 계획이 65.0, 32.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계획성이 없는 비경제적인 의복 구매는 다른 가계 항목의 비용을 침해하여 가계 전체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

의복의 1년간 구매 횟수로는 3회 미만이 75.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복의 구입 장소로는 시장이 90.0(%)로 압도적인 반면에 백화점과 양복점은 극히 소수만이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복의 구입 시기는 돈이 생겼을 때, 옷이 필요할 때가 각각 47.5, 37.5(%)로 응답하고 있어 충동 구매나, 유행에 대한 영향은 적었다. 의복 구입은 70.0(%)의 주부가 혼자서 구입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주부 스스로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자녀와 함께 구입한다는 것이 15.0(%)로 응답하고 있다. 의복 구입시 중요한 점으로는 가격, 색채, 무늬, 디자인, 바느질, 세탁의 용이함이 각각 40.0, 27.5, 12.5, 12.5, 5.0(%)의 순으로 들고 있

어 매우 경제적인 생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복 구입 후의 만족도에 관한 조사에서는 대체로 만족이 45.0(%), 향상 만족이 27.5(%)를 차지하고 있어 의복 구입후, 어느 정도는 만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비의 출처는 본인, 남편, 자녀의 순으로 각각 45.0, 35.0, 17.5(%)로 주부 1인당 월평균 의복비는 1만원 미만과 2만원 미만이 전체의 67.5(%)를 차지하고 있어 한달 의복비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벌당 구매 가격은 1만원 미만이 42.5(%), 3만원 미만이 30.3(%) 2만원 미만이 17.5(%)로 대부분이 3만원 미만의 옷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의 색채·디자인은 진열을 보고 스스로의 구상으로 선정한다가 각각 40.0, 32.5(%)를 차지하고 있어 구입자의 의사로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복 구입시의 문제점으로 55.0(%)의 주부가 가격을, 다음으로 사이즈의 문제를 20.0(%)가 들고 있어 농촌 주부에게는 기성복의 가격이 부담스러우며, 또한 사이즈도 다양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3) 의복 관리

① 세탁

세탁 전에 물에 담가두는 것을 예침이라 하며, 예침의 세탁 효율에 관한 실험에서 살펴보면, 24시간 정도 물에 담가둔 세탁물은 오히려 세탁 효율이 낮아지나 일반적으로 예침은 세탁 효율을 높일 수 있다¹⁾. 예침에 관한 조사에서 하지 않는다가 전체의

<표 5> 세탁실태

조사내용	항 목	N(%)
예침시간	10 분	7(17.5)
	20 분	5(12.5)
	30 분	7(17.5)
	1 시간	· (0.0)
	3 시간	· (0.0)
	3 시간 이상	1(2.5)
	하지 않는다	20(50.0)
	계	40(100.0)
세탁방법	빨래판·방망이로 세탁	26(65.0)
	손으로 비비거나 문질러 세탁	2(5.0)
	세탁기로 세탁	11(27.5)
	효소 세제로 담귀 세탁	1(2.5)
	계	40(100.0)

손세탁시 사용세제	고형 비누	34 (85.0)
	가루 비누	4 (10.0)
	액체 비누	2 (5.0)
	고형과 가루 병용	· (2.5)
	고형과 액체 병용	· (0.0)
	가루와 액체 병용	· (0.0)
계		40(100.0)
세탁기 보유실태	보 유	2 (5.0)
	미 보 유	38 (95.0)
계		40(100.0)
탈수기 보유실태	보 유	3 (7.5)
	미 보 유	37 (92.5)
	계	40(100.0)
삶는 방법	비눗물로만	24 (60.0)
	비눗물에 표백제를 첨가	12 (30.0)
	표백제로만	1 (2.5)
	양젓물(NaOH, 가성소오 다)	· (0.0)
	합성세제액 물 로 만	3 (7.5) · (0.0)
계		40(100.0)
삶는 시간	10분간	12 (30.0)
	20분간	12 (30.0)
	30분간	14 (35.0)
	30분 이상	2 (0.5)
	계	40(100.0)
탈수방법	탈수기를 이용하여 찐다	
	비틀어 찐다	
	눌러 찐다	
	짜지 않는다	
계		40(100.0)

<표 6> 재봉틀의 사용실태

조사내용	항 목	N(%)
보유실태	보 유	21 (52.5)
	미 보 유	19 (47.5)
계		40(100.0)
처 분 희망여부	보 유	5 (23.8)
	처 분	16 (76.2)
계		21(100.0)
사용법의 인지도	알고 있다	24 (60.0)
	모 른 다	16 (40.0)
	계	40(100.0)
사용법을 배운곳	여학교 가사시간	
	어 머 니	18 (75.0)
	친 구	2 (8.3)
	기 타	4 (16.7)
계		24(100.0)
사용용도	옷의 수선	20 (95.2)
	Home fashion품 제작	1 (4.8)
	옷 만들기	
계		21(100.0)
사용빈도	1 ~ 2 회	12 (57.1)
	3 ~ 5 회	
	6 ~ 10회	
	10회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9 (42.9)
	계	21(100.0)
손질	사용할 때 마다	10 (47.6)
	생각날 때 마다	2 (9.5)
	고장시 수리직후	2 (9.5)
	하지 않는다	7 (33.3)
	계	21(100.0)
고장시 수리	본인이 직접한다	8 (38.1)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다	6 (28.6)
	전문 수리점에 의뢰한다	5 (23.8)
	기 타	2 (9.5)
	계	21(100.0)

50(%)를 차지하고 있어 예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세탁은 주로 빨래판과 방망이로 세탁(65.0(%)) 하거나 세탁기(27.5%)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방망이로 두드리는 방법은 기계적인 힘이 충격적으로 가해지면서 세액이 직물에 대하여 직각 방향으로 유동하므로 세탁 효과가 좋고 노력도 적게 드나 섬유 손상이 큰 편이므로 섬유 손상면에서는 밟거나 비비는 세탁방법이 바람직하다²⁰⁾. 손세탁시에는 대부분이 고형비누를 사용하고 있다. 세탁기는 2가구, 탈수기

는 3가구만이 보유하고 있어 세탁기와 탈수기의 보급률이 매우 낮으며 대부분의 주부가 손세탁으로 세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빨래를 삶을 시, 60.0(%)의 주부가 비눗물로 삶을

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비눗물에 표백제를 첨가한다고 응답한 주부는 30.0(%)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부가 비누와 표백제를 사용하여 삶고 있으며, 삶는 시간은 10분, 20분이 30%, 30분이 35%로 응답하고 있어 30분 이내에 빨래 삶기를 마치고 있다. 세탁물의 탈수는 주로 비틀어 짜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탈수효과가 썩 좋지 않으면서 옷감의 손상이 심하고 변형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세탁기와 탈수기의 보급을 확대하여 단시간에 탈수될 뿐 아니라 세탁물의 손상도 줄일 수 있는 원심 탈수법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재봉틀의 사용 실태

재봉틀의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는 <표 6>과 같으며, 재봉틀의 보유는 전체의 약 절반가구인 53.5%가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보유가구에서 재봉틀의 처분을 희망하고 재봉틀의 사용법을 아는 주부는 전체 주부의 60%로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으로 나타났다. 재봉틀은 주부의 95.2%가 옷의 수선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재봉틀의 사용 빈도에서는 사용하지 않거나 월 2회 미만이 각각 57.1, 42.9(%)로 대다수의 주부가 재봉틀을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재봉틀의 청소나 기름치기는 사용할 때 한다가 47.6(%)이며, 하지 않는다가 33.3(%)로 나타났다. 재봉틀 고장시 직접 수리하다가 38.1(%)

다른 사람에게 부탁이 28.6(%) , 전문점에 의뢰한다가 9.5(%)로 응답하고 있어 재봉틀의 손질과 관리가 소홀함을 알 수 있다.

③ 다리미의 사용 실태

착용중에 생긴 구김살을 없애고 필요한 곳에 주름을 세워 피부의 형태를 정비하여²⁰⁾ 주는 다리미의 보유 및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에서 다리미를 보유하지 못한 가구가 17.5(%)이나 차지하고 있으며, 다리질시 다리미의 온도는 황변하거나 용융하기 시작하는 한계농도보다 낮으나 적절한 다리미의 온도를 설정하여야 다리질 효과가 충분하다²⁰⁾. 그러나 반드시 재질에 따라 온도 조절을 한다는 주부는 전체의 35%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아 충분한 다리질 효과를 기대

<표 7> 다리미의 보유 및 사용 실태

조사내용	항 목	N(%)
보유실태	보 유	33(82.5)
	미 보 유	7(17.5)
	계	40(100.0)
재질에 따른 온도 조절	반드시 한다	14(35.0)
	할때도 있고 안할때도 있다	7(17.5)
	안 한다	19(47.5)
	계	40(100.0)

<표 8> 의복의 종류에 따른 다리질 빈도

의복의 종류	빈 도	반드시 한다	가끔 한다	안 한다	없 다	계
		명(%)	명(%)	명(%)	명(%)	명(%)
양복	복	26(65.0)	4(10.0)	10(25.0)	· (0.0)	40(100.0)
한복	복	19(47.5)	10(25.0)	11(27.5)	· (0.0)	40(100.0)
T셔츠	츠	3(7.5)	1(2.5)	35(87.5)	1(2.5)	40(100.0)
블라우스	스	5(12.5)	9(22.5)	26(65.0)	· (0.0)	40(100.0)
바지	지	5(12.5)	9(22.5)	26(65.0)	· (0.0)	40(100.0)
스커트	트	2(5.0)	16(40.0)	22(55.0)	· (0.0)	40(100.0)
원피스	스	1(2.5)	4(10.0)	19(47.5)	16(40.0)	40(100.0)
투피스	스	2(5.0)	3(7.5)	18(45.0)	17(42.5)	40(100.0)
코오트	트	1(2.5)	7(17.5)	18(45.0)	14(35.0)	40(100.0)
쉐타	타	· (0.0)	2(5.0)	38(95.0)	· (0.0)	40(100.0)
와이셔츠	츠	12(30.0)	10(25.0)	18(45.0)	· (0.0)	40(100.0)
잠바	바	2(5.0)	18(45.0)	20(50.0)	· (0.0)	40(100.0)
작업복	복	· (0.0)	· (0.0)	40(100.0)	· (0.0)	40(100.0)
속옷	옷	· (0.0)	· (0.0)	40(100.0)	· (0.0)	40(100.0)

<표 9> 의복의 종류에 따른 드라이 클리닝 빈도

의복의 종류	빈도	반드시 한다	가끔 한다	안 한다	없다	계
		명(%)	명(%)	명(%)	명(%)	명(%)
양복	복	10(25.0)	10(25.0)	20(50.0)	·(0.0)	40(100.0)
한복	복	7(17.5)	19(47.5)	14(35.0)	·(0.0)	40(100.0)
T셔츠	셔츠	·(0.0)	·(0.0)	39(97.5)	1(2.5)	40(100.0)
블라우스	셔츠	·(0.0)	2(5.0)	38(95.0)	·(0.0)	40(100.0)
바지	지	·(0.0)	3(7.5)	37(92.5)	·(0.0)	40(100.0)
스커트	지	·(0.0)	5(12.5)	35(87.5)	·(0.0)	40(100.0)
원피스	스	1(2.5)	4(10.0)	19(47.5)	16(40.0)	40(100.0)
투피스	스	2(5.0)	3(7.5)	18(45.0)	17(42.5)	40(100.0)
코오트	트	3(7.5)	7(17.5)	16(40.0)	14(35.0)	40(100.0)
웨딩타	타	·(0.0)	·(0.0)	40(100.0)	·(0.0)	40(100.0)
와이셔츠	셔츠	·(0.0)	5(12.5)	35(87.5)	·(0.0)	40(100.0)
잠바	바	·(0.0)	·(0.0)	40(100.0)	·(0.0)	40(100.0)
작업복	복	·(0.0)	·(0.0)	40(100.0)	·(0.0)	40(100.0)

<표 10> 드라이 클리닝을 하지 못하는 이유

항목	명(%)
전문 드라이 클리닝점이 가까이 없다	16(40.0)
드라이 클리닝 가격이 비싸다	3(7.5)
손세탁을 해도 괜찮다	6(15.0)
귀찮다	12(30.0)
기타	3(7.5)
계	40(100.0)

하기 어렵다. 또한 반드시 다림질을 하는 옷으로 양복, 한복, 와이셔츠가 각각 65.0, 47.5, 30.0(%)만이 응답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옷이 다림질을 전혀 하지 않고 착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농촌 생활의 바쁜 일과로 여유시간이 없을 뿐 아니라 피복의 피로의 회복과 외관을 정비시키는 다림질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④ 드라이클리닝 실태

건식세탁(드라이 클리닝)은 지질이 손상되지 않고 섬유 자체의 팽윤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직물이 수축하지 않으며 유성 오염이 잘 제거될 뿐만 아니라 살균, 살충 효과 있다¹⁹⁾. 특히 습식세탁으로 인하여 패운되기 쉽거나, 형태 안정성이 좋지 못한 의복은 반드시 드라이클리닝을 요구한다. 그러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복, 한복이 각각 25.0, 17.5(%)만이 반드시 드라이클리닝을 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의복은 전혀 드라이클리닝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드라이클리닝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전문 드라이클리닝점이 없다가 40%, 귀찮다가 30%, 드라이클리닝 가격이 비싸다가 7.5%로 응답하고 있는 실정이다<표10 참조>.

⑤ 옷의 보관

의복의 보관 용기에 관한 조사에서, 양복, 한복, 원피스, 투피스, 코오트, 와이셔츠 등은 옷장에 보관하고 있으나 다른 대부분의 의복은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다<표11 참조>. 의복을 정리하는 데는 우선 알맞는 분류법에 의해 구분하고 꺼내기 편리한 곳에 간추려 넣는 것이 가사노동에서 능률적인 방법이다. 의복의 분류는 가족수와 가족의 구성상태, 생활 정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계절별, 자주입는 것, 가끔입는 것, 별로 입지 않는 것등으로 분류,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복의 보관 전 세탁여부에서는 반드시 한다가 67.5%로 응답하고 있으며<표12 참조>, 의복의 오염은 곰팡이나 해충의 영양분이 되고 섬유가 변질되고 취화하는 원인이 되므로 오염을 제거하여 깨끗하게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 폐기 처분

의복 한 벌을 구입하여 착용한 다음, 폐기 처분할 때까지의 경로는 경제사정, 취미, 착용 습관에 따라 다르다. 생활 목적에 맞추어 구입한 의복을 폐기하거

<표 11> 의복의 종류에 따른 보관 장소

의복의 종류	구 분	옷 장	서랍 장	박스류	기 타	없 다	계
		명(%)	명(%)	명(%)	명(%)	명(%)	명(%)
양복	복	36(90.0)	4(10.0)	·(0.0)	·(0.0)	·(0.0)	40(100.0)
한복	복	34(85.0)	5(12.5)	·(0.0)	1(2.5)	·(0.0)	40(100.0)
T셔츠	셔츠	7(17.5)	33(82.5)	·(0.0)	·(0.0)	·(0.0)	40(100.0)
블라우스	셔츠	7(17.5)	32(80.0)	·(0.0)	1(2.5)	·(0.0)	40(100.0)
바지	바지	10(25.0)	30(75.0)	·(0.0)	·(0.0)	·(0.0)	40(100.0)
스커트	스커트	13(32.5)	23(57.5)	·(0.0)	4(10.0)	·(0.0)	40(100.0)
원피스	원피스	18(45.0)	3(7.5)	·(0.0)	3(7.0)	16(40.0)	40(100.0)
투피스	투피스	21(52.5)	2(5.0)	·(0.0)	·(0.0)	17(42.5)	40(100.0)
코오트	코오트	24(60.0)	2(5.0)	·(0.0)	·(0.0)	14(35.0)	40(100.0)
새타	새타	5(12.5)	32(80.0)	1(2.5)	2(5.0)	·(0.0)	40(100.0)
와이셔츠	와이셔츠	23(57.5)	16(40.0)	1(2.5)	·(0.0)	·(0.0)	40(100.0)
잠바	잠바	15(37.5)	24(60.0)	1(2.5)	·(0.0)	·(0.0)	40(100.0)
작업복	작업복	5(12.5)	33(82.5)	2(5.0)	·(0.0)	·(0.0)	40(100.0)
속옷	속옷	4(10.0)	35(87.5)	1(2.5)	·(0.0)	·(0.0)	40(100.0)
양말	양말	4(10.0)	34(85.0)	2(5.0)	·(0.0)	·(0.0)	40(100.0)

<표 12> 의복 보관전 세탁

항 목	명(%)
반드시 한다	27(67.5)
옷에 따라 한다	10(25.0)
안 한다	3(7.5)
계	40(100.0)

<표 13> 의복의 폐기처분 이유

항 목	명(%)
옷이 헤어져서	32(80.0)
유행에 뒤진다	1(2.5)
몸에 맞지 않는다	5(12.5)
얼룩 또는 염색이 탈색됐다	2(5.0)
계	40(100.0)

나 버리는 이유로는 옷이 헤어져서가 80%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몸에 맞지 않는다는도 12.5%로 응답하고 있어 유행을 따르기 보다 옷감이 약화되거나 파손되었을 때, 의복의 치수가 변하였거나 착용자의 체형이 변화했을 때 폐기처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3 참조).

2. 식생활 양식

1) 체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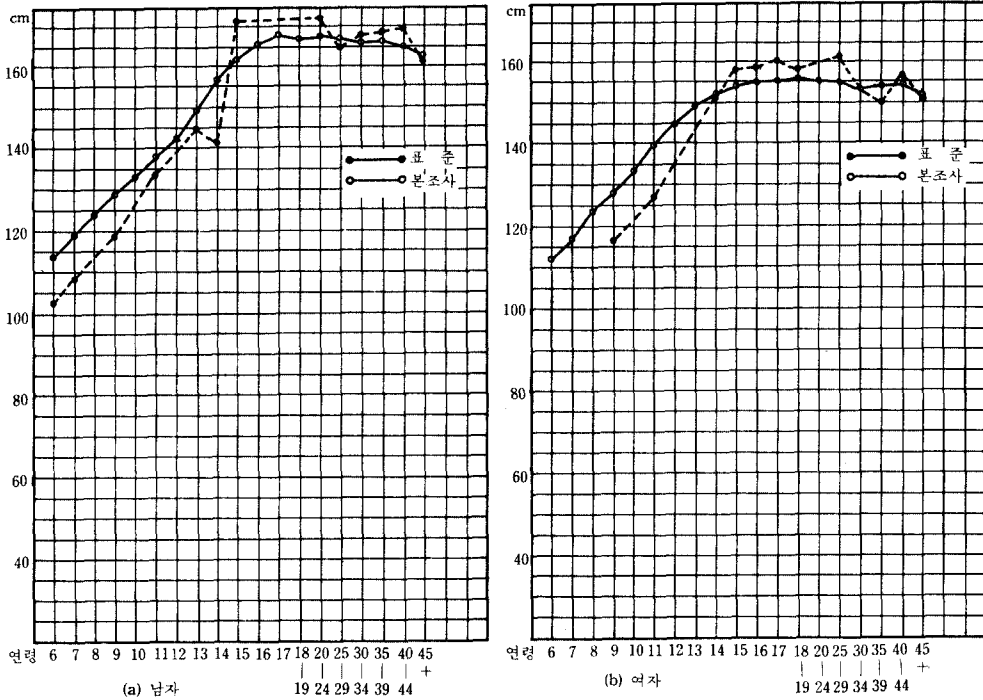
신체측측법은 오래전부터 영양상태를 평가하는 한 척도로 사용되어 왔으며 그 중 신장과 체중의 상태와 관계는 영양상태 평가의 지표로 사용된다²⁴⁾.

본 조사의 측정치를 한국 과학기술연구소가 작성한 국민체위조사 연구 보고(1980)의 결과와 비교하여(그림 2)와(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런데 이 결과에서는 대상자의 연령분포상의 특성 즉 조사대상 지역의 연령분포가 어린이로부터 청년에 이르는 연령층이 매우 적고 주로 중년 이후의 장년들로 구성된 분포이므로(표 2) 45세 이상에서만 평균치의 의미가 있고 그 외의 연령층에서는 전체적인 경향보다는 개인차에 의한 변이가 더 많이 작용하여 체위의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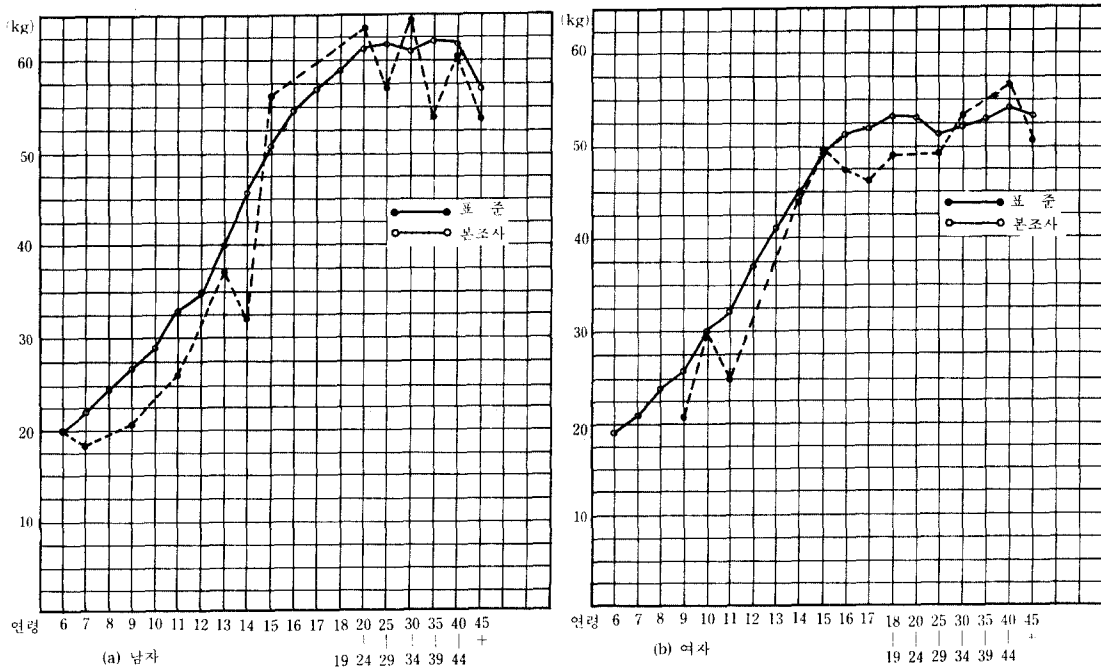
45세 이상의 경우 신장은 조사대상 남자 평균 161.9cm, 여자 150.3cm로 국민 전체 평균인 남자 163.0cm와 여자 152.0cm보다 작았으며, 체중도 조사대상 남자 평균 53.8kg 여자 51.0kg으로 국민 전체 평균인 남자 57.0kg과 여자 53.5kg보다 적었다.

2)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실태

영양상태와 질병의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림 2] 조사대상자의 신장 분포



[그림 3] 조사대상자의 체중 분포

<표 14> 식품 섭취량

식품군		섭취량(g) (섭취율(%))	
		본조사	전국*
식물성 식품		1056.9 (90.3)	974.6 (88.0)
	곡 류	488.7 (41.7)	493.5 (44.6)
	서 류	23.2 (2.0)	13.2 (1.2)
	당 류	8.7 (0.7)	2.1 (0.1)
	두 류	42.6 (3.6)	25.8 (2.3)
	채 소 류	348.9 (29.8)	291.9 (26.4)
	버섯 류	0.4 (0.0)	1.5 (0.1)
	과 실 류	1.3 (0.1)	26.2 (2.4)
	해 조 류	4.5 (0.4)	12.0 (1.1)
	음료 및 주류	40.2 (3.4)	53.2 (4.8)
	조미료류	81.0 (6.9)	48.8 (4.4)
	종실 및 견과류	5.0 (0.4)	1.5 (0.1)
	유 지 류	12.4 (1.1)	4.9 (0.4)
동물성 식품		113.7 (9.7)	132.6 (12.0)
	육 류	20.1 (1.7)	29.5 (2.7)
	난 류	12.4 (1.1)	19.3 (1.7)
	어 배 류	66.5 (5.7)	66.1 (6.0)
	우유·유제품	14.8 (1.3)	17.7 (1.6)
총	계	1170.6 (100.0)	1107.2 (100.0)

*농촌 영양 개선 연수원('87. 봄)

식품 섭취 상황, 영양섭취 상태, 식습관 등의 식생활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²⁵⁾.

<표 14>는 조사대상자의 식품섭취량이다. 1일 1인당 총 식품섭취량은 1170.6g인데 이 중 식물성 식품의 섭취량이 90.3%를 차지하고 있고 동물성 식품의 섭취량은 9.7%에 불과해 식품섭취의 불균형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보건사회부가 1969년부터 매년

<표 15> 영양소 섭취량

영양소	권장량	섭취량	섭취율 (%)	전국 섭취율* (%)
에너지 (kcal)	2052.8	2163.0	105.4	107.4
단백질 (g)	67.8	75.9	111.9	118.7
지방 (g)	45.6	33.2	72.8	59.1
칼슘 (mg)	586.0	548.7	93.6	92.2
철 (mg)	12.0	19.6	163.3	255.3
비타민 A (I.U)	7325.4	12023.9	164.1	81.0
비타민 B ₁ (mg)	1.04	1.29	124.0	132.4
비타민 B ₂ (mg)	1.33	1.35	101.5	102.3
니아신 (mg)	13.9	15.1	108.6	138.0
비타민 C (mg)	54.1	96.8	178.9	145.2

*농촌 영양 개선 연수원('87. 봄)

실시하고 있는 '국민영양조사'의 결과를 보면 동물성 식품의 섭취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1985년에는 183.0g을 섭취하였고, 총 식품섭취량에 대한 동물성 식품 섭취량의 비는 17.4%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에 비하면 본 조사대상자의 경우는 동물성 식품의 섭취량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1987년 봄에 농촌 영양개선 연수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도 역시 낮은 수준이다.

식물성 식품에 있어서도 섭취량의 대부분이 곡류와 채소류이고 그 외의 식품의 섭취는 매우 적어 식품의 다양한 섭취가 요구된다.

영양소 섭취량 및 권장량, 권장량에 대한 섭취량의 비율인 섭취율은 <표 15>와 같다. 영양소의 섭취율에 있어 지방(72.8%)과 칼슘(93.6%)을 제외한 모든 영양소의 섭취량이 권장량을 초과하여 양호한 영양섭취 상태를 나타냈다. 그러나 <표 16>의 식품군별 영양소 섭취율을 고려하여 본다면 영양소의 질적인 면의 부족현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영양소의 섭취율은 전국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대체적으로 유사한 경향이나 본 조사지역이 철과 니아신의 섭취는 상대적으로 낮았고, 비타민 A와 비타민 C의 섭취는 더 높다.

또한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에너지의 구성비이다. 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에서 얻어진 에너지의 구성비가 14.0 : 13.8 : 72.1로써 한국인의 경우 바람직한 구성비인 15 : 20~25 : 60~65²⁶⁾와 비교해 볼 때,

<표 16> 식품군별 영양소 섭취율(%)

식품군	영양소	에너지	단백질	지방	칼슘	철	비타민 A	비타민 B ₁	비타민 B ₂	니아신	비타민 C
<식물성 식품>		93.1	64.2	89.7	61.0	79.2	99.0	88.6	81.2	71.2	99.8
곡류	류	68.0	21.3	12.8	14.2	15.8	0.1	36.6	19.7	42.1	0.0
서리	류	1.2	0.2	0.2	0.3	2.1	0.1	2.4	0.9	1.6	4.3
당	류	1.6	0.0	0.0	0.0	0.1	0.0	0.0	0.0	0.0	0.0
두	류	1.7	2.8	3.1	2.8	1.1	0.2	5.7	3.4	2.5	2.8
중실	견과류	1.4	0.7	6.3	8.2	0.6	0.0	2.4	0.9	0.0	0.0
채소	류	5.4	5.6	8.1	23.3	29.6	94.4	30.9	50.4	20.0	92.1
버섯	류	0.0	0.0	0.0	0.0	0.1	0.0	0.0	0.0	0.0	0.0
과실	류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해조	류	0.6	0.8	0.1	2.7	5.2	3.2	4.9	6.0	0.0	0.4
음료	및 주류	5.1	0.0	27.9	0.3	0.1	0.0	0.0	0.0	0.0	0.0
조미료	류	3.2	32.8	3.4	8.7	24.6	0.9	5.7	0.0	4.8	0.0
유	지류	5.1	0.0	27.9	0.1	0.0	0.0	0.0	0.0	0.0	0.0
<동물성 식품>		6.9	35.8	10.3	39.0	20.8	1.0	11.4	18.8	28.8	0.2
육	류	1.3	3.1	2.2	0.3	4.7	0.0	6.5	6.8	15.8	0.0
난	류	0.9	1.1	3.1	0.9	1.5	0.8	0.8	4.3	0.1	0.0
어패	류	4.4	31.3	4.5	35.7	14.6	0.1	4.1	6.0	12.9	0.1
우유·유제품		0.3	0.3	0.7	2.0	0.1	0.1	0.0	1.7	0.1	0.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탄수화물로의 에너지 섭취가 많고 지방으로의 에너지 섭취가 매우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대도시군이 소도시군에 비해 지방으로의 에너지 섭취가 유의적으로 높고, 저소득층일수록 낮다는 연구 보고²⁷⁾와도 관련지을 수 있겠다.

각 영양소의 섭취량을 식품군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가 <표 16>에 나타나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영양소 섭취가 일부 식품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런데 식품섭취의 편중상태는 단순히 식품군의 편중뿐 아니라 식품자체의 종류의 편중상태이다. 이의 방증을 위해 각 가구마다 하루 3끼를 모두 집에서 식사한 날의 섭취식품의 가지수를 분석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17>과 같다.

1가구의 1일당 평균 연섭취식품수는 20.7가지이고, 섭취식품수는 11.9가지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섭취식품수에 관해 보고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일본의 조사 보고²⁸⁾와 비교하여 보면 일본의 경우 1가구의 1일당 평균 연섭취식품수는 31.8가지, 섭취식

<표 17> 1일 섭취 식품의 가지 수

	연 섭취 식품수		섭취 식품수		
	식품수 (가지)	가구%	식품수 (가지)	가구%	일본 ²⁷⁾ %
	~14	9(12.9)	~10	16(22.9)	0.0
	15~19	22(31.4)	10~14	39(55.7)	8.1
	20~24	27(38.6)	15~19	14(20.0)	23.0
	25~29	8(11.4)	20~24	1(1.4)	32.6
	30~	4(5.7)	25~	0(0.0)	36.3
계		70(100.0)		70(100.0)	100.0
평균	20.7±5.1		11.9±3.2		22.9

품수는 22.9가지로 매우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양소의 균형적인 섭취를 위해서는 식품의 다양한 섭취가 우선되어야 하겠으며, 이는 식생활 개선의 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결과라 하겠다.

3) 영양지식과 식습관 태도

가정의 식생활 관리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는 주부의 영양에 대한 지식은 가족의 영양섭취에 큰 영향을

미친다²⁹⁾. 따라서 주부들에게 올바른 영양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영양교육이 요구된다. 그러나 영양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에 의한 건전한 식습관 형성으로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³⁰⁾. 본 연구에서 효과적인 영양교육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주부들의 영양지식과 식습관 태도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8>에는 영양지식에 관한 15개 문항에 대하여 '맞는다' '틀린다' '모르겠다'의 응답 중 '맞는다' 혹은 '틀린다'에 응답하여 그 질문에 대한 의견을 가진 '인지된 지식'의 비율과 이 중 맞게 답한 항목의 백분율을 계산한 정확도가 나타나 있다. 영양지식의 인지도는 64.9%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³¹⁾의 결과(87.96%)나 마산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김등³²⁾의 결과(87.2%)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었으나 정확도에 있어서는 68.2%로 김³¹⁾의 54.57%, 김등³²⁾의 51.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³³⁾ Appringht³⁴⁾, Schwartz등³⁵⁾은 영양지식이 식생활 태도와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바람직한 식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영양지식은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³¹⁾도 영양지식점수와 식습관 점수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영양지식과 식생활 태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으며³⁶⁾, 개인의 영양지식 수준이 식생활의 충실도를 측정하는 한 자료²⁷⁾라고 보았다. 본 조사에서는 주부들의 영양지식 점수와 식습관 점수의 관계를 살펴 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19>와 같다.

영양지식 점수는 가능한 15점 중 평균 66점으로 지

식수준은 44%정도였고, 식습관 점수는 가능한 20점 중 평균 7.7점으로 '우수' '보통' '약간 나쁨' '나쁨'의 4그룹 중 3번째 그룹에 속하는 낮은 점수를 나타내 식습관 개선이 주요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또, 각 식습관 그룹에 있어서의 영양지식 점수는 <표 20>과 같아서 식습관 태도가 좋은 그룹이 나쁜 그룹에 비해 영양지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약간 나쁨'과 '나쁨'의 두 그룹간에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아 농촌 주부의 경우에는 영양지식을 실제 식생활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을 볼 수 있다.

실제 식생활 태도에 있어 식사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맛이고, 다음으로는 '음식의 재료'로 영양적인 배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1>.

<표 20> 각 식습관 그룹에 있어서의 영양지식 점수의 비율

우 수	보 통	약간 나쁨	나쁨
% 영양지식	% 영양지식	% 영양지식	% 영양지식
0	18.8	59.4	21.9
-	7.4±1.3	6.3±2.1	6.8±1.0

<표 21> 식사준비시 고려사항

항 목	N(%)
영양적 균형	5(15.6)
맛	13(40.6)
재 료	11(34.4)
조리 시간	3(9.4)
계	32(100.0)

<표 22> 영양 지식의 정보원

항 목	N(%)
과거 학교	0(0.0)
가족원	1(3.1)
의사나 간호원	0(0.0)
이웃	7(21.9)
TV, 라디오	15(46.9)
신문 잡지	0(0.0)
강 습	2(6.3)
책	2(6.3)
정보원이 없다	5(15.6)
계	32(100.0)

<표 18> 영양 지식의 인지도와 정확도 수준

인 지 도		정 확 도	
%	% range	%	% range
64.9	26.7~86.7	68.2	50.0~100.0

<표 19> 영양 지식 점수와 식습관 점수

영양 지식 점수		식습관 점수	
mean±S.E	range	mean±S.E	range
6.6±1	2~10	7.7±3.3	1~14

또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의 영양지식에 관한 정보원으로는 'TV·라디오'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이웃'을 들고 있어 정확성과 신뢰도가 낮은 정보원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게다가 15.6%는 '정보원이 없다'고 응답하여 책임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원이 시급하다 하겠다.

식생활을 개선코자 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표 23>과 같이 '경제적 곤란'과 '식품구입의 불편'을 지적하였다. 농업노동의 부녀자 의존도가 높아 주부들의 노동과중으로 가사노동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부족한 것이 식생활 개선의 어려움으로 지적되리라고 예상되었으나 그보다 더욱 어려운 것이 경제적인 면과 식품구입의 불편함이므로 이 두가지의 문제를 함께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그런데, 한재 섭취하고 있는 식품의 대부분이 자가생산 식품임을 고려해 본다면 영양적으로 균형있는 식품의 섭취와 경제적인 면, 식품구입의 문제 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다양한 식품을 자가생산할 수 있도록 연구·지도하는 것이 첩경일 것으로 생각된다.

<표 23> 생활 개선시 애로 사항

항 목	명 (%)
식품 구입 불편	9(28.1)
영양 지식 부족	4(12.5)
조리 시간 부족	2(6.3)
경제적 곤란	17(53.1)
계	32(100.0)

3. 주생활 양식

1) 배치 형태

농촌주택은 대지내에 주거용의 단위건물의 농작업에 필요한 비주거기능의 건물도 함께 배치되는 것이 그 특징이다³⁸⁾.

조사지역의 단위주거에는 주거용의 윗채(또는 몸채), 윗채에 종속된 주거기능과 농작업에 필요한 비주거기능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아랫채(또는 사랑채), 작업·저장·축사등의 농작업을 위한 공간인 부속사가 함께 배치되어 있다. 대지내 건물배치는 이들 건물의 조합에 의해 크게 네가지 유형으로 대별된다. 즉 아랫채나 부속사 없이 윗채만으로 배치된 것이 4%(2/48호), 윗채에 헛간, 창고, 축사등의 부속사가 붙은 "윗채+부속사"로 구성된 것이 16.6%(8/48호), 윗채와 아랫채로 구성된 것이 33.3%(16/48호)로 나타났으며, 가장 일반적인 배치형태는 "아랫채"와 別棟의 "부속사"가 함께 존재하는 "윗채+아랫채+부속사"로 구성된 것으로 약 45%(22/48호)가 이런 배치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각의 배치유형은 다시 마당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간적인 형태에 따라 "二字형"(12.5%, 6/48호), "ㄱ자형"(37.5%, 18/48호) "ㄷ자형"(31.2%, 15/48호) "ㄹ자형"(8.3%, 4/48호)으로 구분된다. 이 중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것은 윗채 좌 또는 우측면에 아랫채 또는 부속사가 직각으로 배치된 "ㄱ자형"이며(그림 4), 그 다음은 "ㄷ자형"으로(그림 5) 윗채 前面의 좌·우측면에 아랫채와 부속사가 마주보며 직각으로 배치된 형태이다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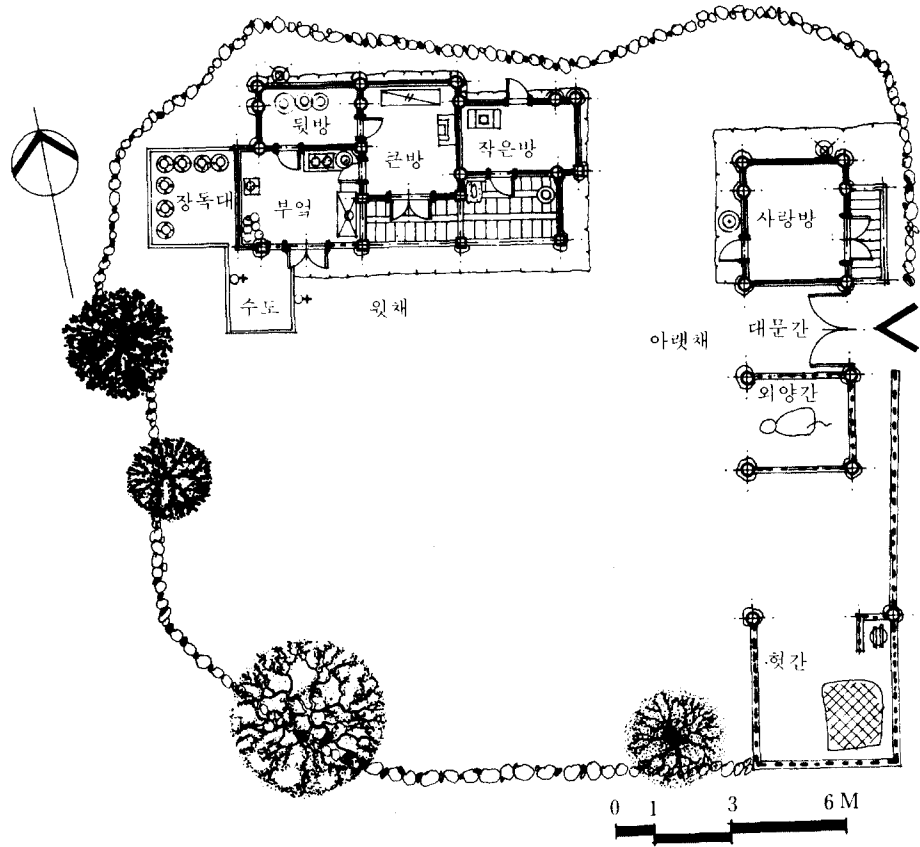
윗채의 좌향을 기준으로한 주택방위의 분포는 <표 24>와 같다.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의 주된 향이 정남향을 중심으로 남동향에서 남서향에 걸쳐 나타나고, 특히 정남에서 남남서 사이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마을의 지세에 순응하면서 일조를 고려하여 주택을 배치한 결과로 보여진다.

2) 평면형태 및 공간구성

조사지역에서 나타나는 주택의 평면을 분류해 보면 먼저 윗채(또는 몸채)의 경우 3間이나 4間의 前後退 집(3-a·bc, 4-a·b형)의 평면형태가 주류를 이루고(33/48호)있다⁴⁰⁾. 이 밖에도 3間 또는 4間의 평면에서 부엌부분이 횡분할되어 부분적인 복열화가 이루어지면서 부엌 뒷쪽에 뒷방이 첨가된 평면형(3-d, 3-e.

<표 24> 주택방위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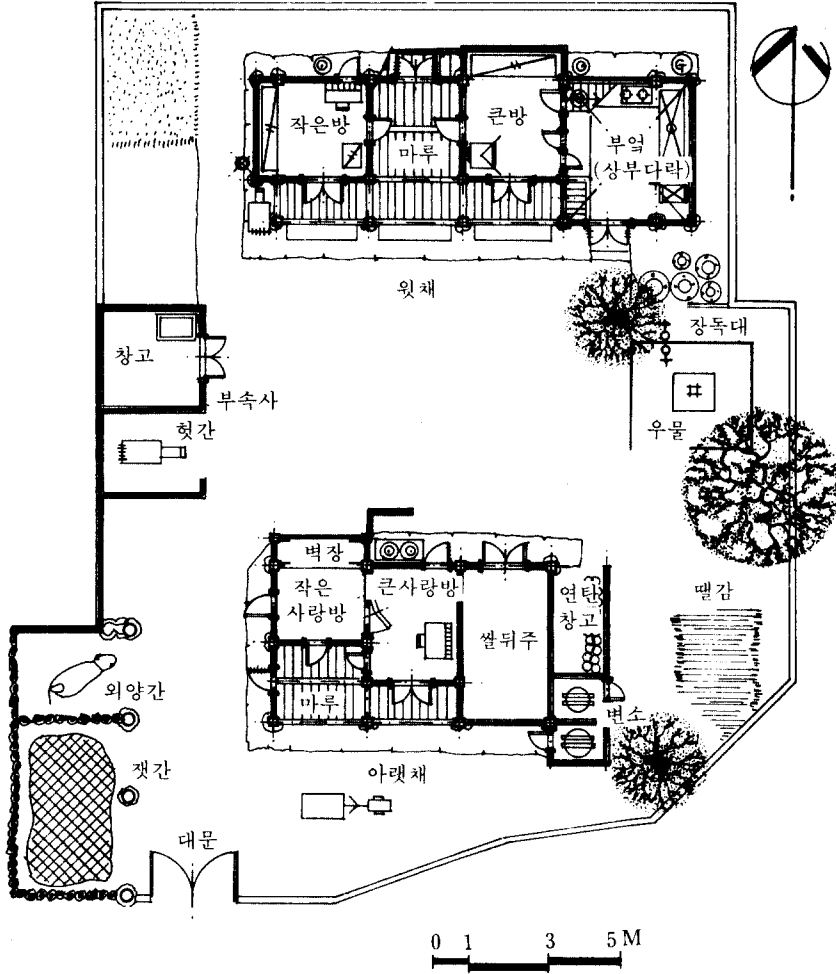
구분 방위	N-NNE	NE-ENE	E-ESE	SE-SSE	S-SSW	SW-WSW	W-NW	NNW	計
戶 數	0	1	3	18	24	1	1	0	48



도면 표시 기호

가래인	스지		상 농		이 불		TV	
선법	기술		찬 장		책 상		냉장고	
장 독			연 탄		책 장		선풍기	
가스통			술		굴 뚝		전 축	
우 물			수 도		재봉틀		세탁기	
소			성운기		농기계		가마니	

[그림 4] “7자형” 배치의 典型



도면 표시 기호

가레인지	스지	장농	이불	TV	
전밥	기술	찬장	책상	냉장고	
장독		연탄	책장	선풍기	
가스통		솔	굴뚝	전축	
우물		수도	재봉틀	세탁기	
소	경운기	농기계	가마니		

[그림 5] “다차형” 배치의 전형

구분	室구성	기본형	평면형 면 위치	변화된 평면형태	호수	계
正面 2間	방 + 부엌	2간형 	2-a형 좌측		2	2
正面 3間	부엌 + 방 + 방	3간형 	3-a형 우측		10	27
			3-b형 좌측		12	
	3-c형 특수		3			
방 + 방 + 부엌		3-d형 우측		1		
방 + 부엌 + 방 + 방		3-e형 좌측		1		
正面 4間	부엌 + 방 + 마루 + 방	4간형 	4-a형 우측		7	11
	4-b형 좌측		1			
	4-c형 우측				3	
정면 5間	방 + 마루 + 방 + 부엌	5간형 	5-a형 우측		1	1
개량주택	방 + 방 + 부엌	개량형 	6-a형 우측		3	6
부엌 + 방 + 방		6-b형 좌측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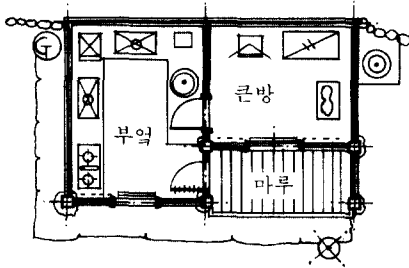
* 주) 방 : 방 카 : 부엌 모 : 욕실 · 다용도실

[그림 6] 조사지역의 평면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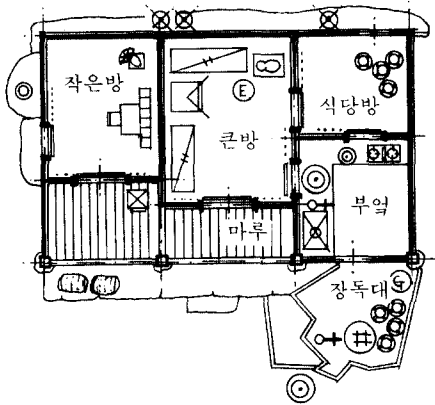
4-c형)도 소수 분포되고 있다(5/48호). 이 평면형은 근년에 신축된 개량주택(6/48호)인 6-a형 평면과도 관련이 있는데 방 사이의 마루가 앞쪽으로 나오면서 “부엌+방+방”이 일렬로 구성된 점이 다를 뿐 기본적인 실배치는 같다. 또 개량주택의 평면형 중 6-b형은 내부부가 제시한 표준주택안 15평형인 “15-라”를¹⁾

기본으로 이를 사정에 맞게 내부공간구성을 변경한 것으로 3F가 이렇게 지어졌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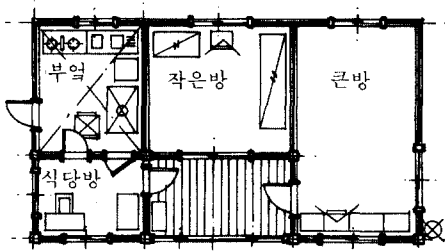
조사지역 단위주택의 평면형태는 식침 분리를 위한 최소 규모의 평면인 2-a형(그림 7)의 “부엌+방”에 침실(방)의 수가 증가되고, 다기능의 마루가 시설되고, 수장공간인 고방·도장방·창고 등이 부가되면



[그림 7] 전면 2間 주택의 평면 형태



[그림 8] 식당방이 있는 전면 3間 주택의 6-a의 평면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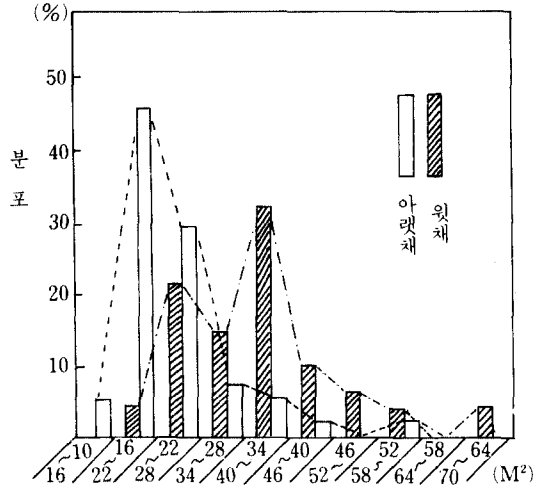


[그림 9] 개량주택 6-b형의 평면 형태

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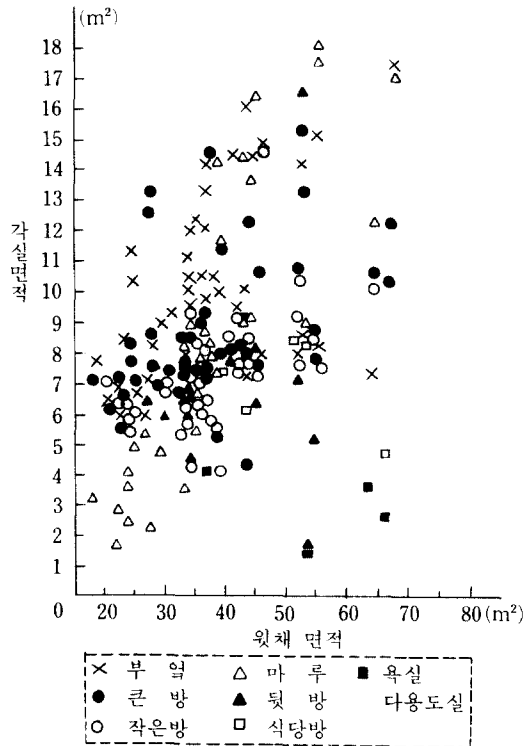
정면 3間的 평면형(그림 11의 a참조)은 좌 또는 우측에 부엌을 두고 거기에 붙여 큰방·작은방을 차례로 배열하고, 마루(대청) 대신 좁은 뒷마루나 가동적인 평상을 방 앞에 설치하여 생활공간을 실외로 확장시킨 평면형태로 이 마을 농가의 보편적인 평면형이다.

정면 4間的 평면형(그림 5의 몸채 참조)은 앞의 3間형 평면의 큰방과 작은 방 사이에 1間 크기의 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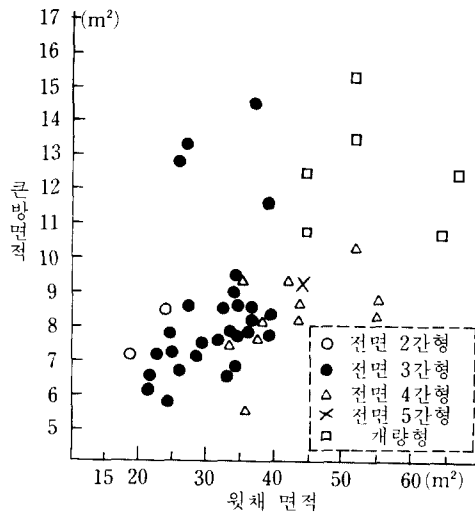
[그림 10] 윗채와 아랫채의 면적 분포

<표 25> 윗채 면적과 각실의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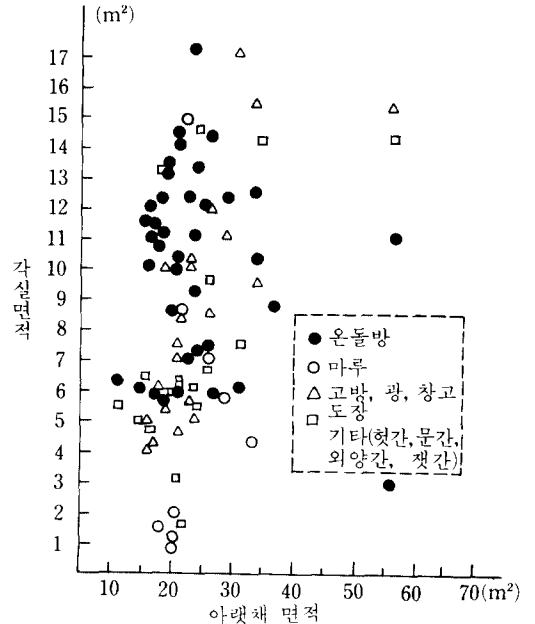


가 삽입된 형으로, 생활 공간 확대요구에 대응해 마루를 시설하여 주거공간을 확장한 것으로 비교적 경

<표 26> 윗채의 평면형과 큰 방의 면적



<표 27> 아랫채 면적과 각실의 면적



제적 여유가 있는 자영계층 농가에서 많이 채택되고 있다.

정면 5간의 평면형은 전술한 3間형 평면에 2間 크기의 마루가 시설된 것으로 마을의 핵심가옥에서 1例만 조사되었다.

아랫채의 경우 2~3間 홑집으로 부터 4, 6間 겹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겹집일 경우 일부는 거주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1間1室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다양한 증·개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속채의 경우 간이 구조물이 대부분이고 담장까지 연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하고 불규칙한 평면형태로 나타난다.

각棟별 공간구성과 이용행태를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윗채(또는 몸채) : 3間일 경우 부엌과 큰방·작은방의 순으로 배열되며, 일부 주택에서는 부엌 뒷쪽으로 뒷방이 접속되기도 한다. 4間일 경우는 큰방과 작은방사이에 1間 마루가 삽입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엌뒤로 뒷방이 첨가되기도 한다. 윗채의 규모는 대개 22~40m²(6.6~12.1평) 정도로 그 중에서도 34~40m²(10.3~12.1평) 범위의 것이 가장 보편적이며(그림 10), 윗채 면적과 각실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표 2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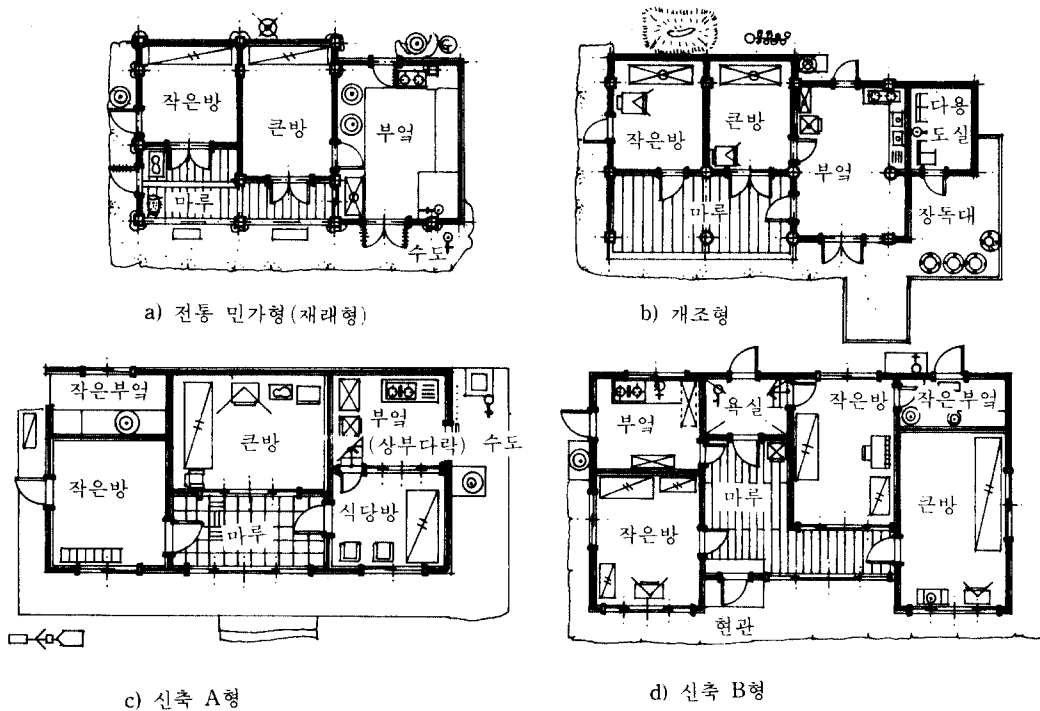
부엌은 취사·난방작업과 주방기구의 수장이 주용

도이며 석유콘로나 가스레인지 보급으로 점차 취사작업이 분리되고 있으며, 취사와 난방 겸용의 재래식 부엌형태가 점차 입식부엌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7. 큰방은 가장부부의 취침공간이자 전가족의 식사, 가사, 단란, 접객, 제사(3間평면에서)등의 다양한 수행위가 이루어지는 주생활의 중심적 공간이다. 근년에 들어 보급이 급격히 늘고 있는 현대식 가구의 사용으로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으나 역시退를 통한 전통적 공간확장방법이 고수되고 있다. 윗채의 평면형태와 큰방의 면적을 표로 나타낸 것이 <표 26>이다.

8. 작은 방은 부부가족일 경우 자녀들이 영역이며 직계가족일 경우 아들부부의 생활공간이 된다. 가족구성의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공간확장의 필요가 있을시는 前退와 後退를 통해 室의 확장이 이루어진다.

9. 뒷방은 취사를 위한 용기와 재료 및 조리료 등을 보관하고, 음식을 조리하는 보조공간으로 부엌에 딸린 부속실의 성격을 갖는다. 부엌과 큰방에서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을 두어 부엌을 중심으로 큰방, 뒷방이 기능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주부의 가사노동경감을 꾀하고 있다.



[그림 11] 윗채(몸채) 평면의 형태적 분류

르. 조사지역에서는 4間일 경우 개방된 마루로서 청(또는 대청)으로 불리우는 공간을 갖는데 주로 각실에서 수용할 수 없는 주생활을 수용하는데 이용되며, 특히 제사공간과 여름철의 생활 공간으로 중요시된다.

② 아랫채(사랑채) ; 거주공간인 1間 또는 그 이상의 아랫방(또는 사랑방)에 곡물을 수장하는 도장이나 소의 사육공간인 외양간, 갯간, 헛간등이 결합된 형태가 대부분이다(그림 5의 아랫채 참조). 이때 거주공간은 대개 윗채로부터 먼곳에 위치하며 그 앞에는 별도의 마루(또는 뒷마루)가 대문을 향해 시설된다. 이것은 사랑방이 家長의 거주공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班家에서 갖는 사랑채의 독립성을 民家에 적용한 예로 보여진다⁴²⁾. 아랫채의 면적은 대부분 16~28m²(4.8~8.5평) 정도이며(그림 10) 아랫채 면적과 각실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 <표 27>이다.

3) 평면형태와 공간구성의 변화

이 지역의 주택들도 근대화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에 대응해 주거공간을 부분적으로 수선·개조하거

나 신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마을에도 순수한 전통민가형(재래식 주택형)과 전통민가의 골격을 가지고 대수선이 이루어진 개조형 및 시멘트 벽돌이나 블럭을 이용하여 근대식 구조체로 건축한 신축형이 병존하고 있다.

이들 주택은 발생순서로 볼 때 전통민가형, 개조형, 신축형의 순서로 변화가 진행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중이다.

건물별로는 가장 많이 변화하는 것이 윗채이고 그 다음이 아랫채와 부속사 순이다. 윗채의 변화는 부엌면적의 확장을 위한 측면과 배면으로의 벽체 증설이 가장 많았다(12/48호). 그리고 벽체 증설에 의한 내부공간확장이 더 이상 어렵거나 건물의 노후로 신축이 불가피한 경우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신축하게 되는데 48戶중 6戶가 이렇게 건축된 개량주택이었다. 또는 신축이 여의치 못할 경우 대수선으로 내부 공간의 구조를 기능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개조형 주택도 있었다(4/48호).

이상으로 볼 때 윗채에 필요공간의 일부 증설, 대수선에 의한 개조 및 신축등의 행위가 48戶 중 22戶

(약 46%)의 주택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대부분의 주택들이 윗채의 변형으로 주생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윗채 다음으로 많은 변화를 보인 아랫채에서도 부족한 일부 공간의 증설한 것(6/48호), 개조된 것(1/48호), 신축한 것(6/48호) 등의 사례가 많이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27%의 주택에서(13/48호) 침실등의 거주용 공간의 부족 및 기능 분화에 따른 공간확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랫채를 신축 또는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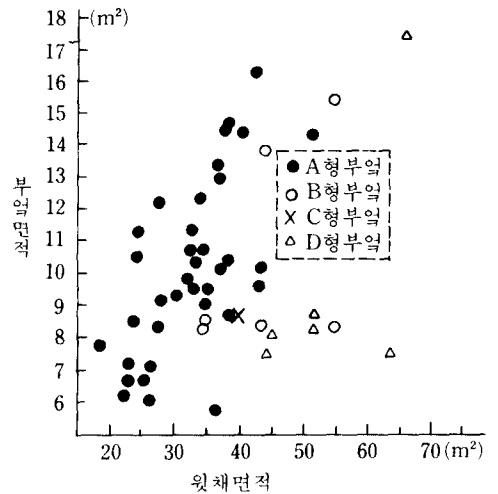
비주거용 공간인 부속사도 48戶 중 8戶에서 부분적인 증축 및 신축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농업생산량의 증가에 따른 수장공간의 확장과 농기계 격납을 위한 공간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건물의 변형은 평면의 형태적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바, 변형의 과정을 평면형태의 변화과정으로 해석한다면 각 단계 평면의 형태적 차이에 의해 時系列的인 변화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윗채의 경우 [그림 11]의 개조형에서 큰방과 작은방 후면 및 부엌의 측면으로 단계적인 공간확장이 이루어지면서 부엌에 접속되어 4m²정도의 간단한 샤워 및 세탁을 할 수 있는 다용도실이 새롭게 설치되고 있다. 신축A형에서는 마루 앞쪽에 유리문이 달리면서 마루가 내부공간화하고 입식부엌으로 변화하였으나, 전통민가처럼 여전히 부엌바닥의 높이는 방바닥의 그것보다 60cm가량 낮다. 뿐만 아니라 작은방 뒤에는 별도의 재래식 아궁이를 시설하여 연료사용의 융통성을 고려하고 있다. 신축B형에는 4m²의 목욕탕이 설치되고, 큰방·작은방 외에 건너방이 놓여 침실수가 증가하고, 마루면적의 증가와 더불어 거실화되는 변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는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영향관계는 이미 선행연구⁴³⁾에서 밝혀진 바 있다.

地價와 住宅價의 앙등으로 주거공간을 극대화하여 주거의 교환가치를 증대하려는 요구와 농업적 활동의 감소로 인하여 필요성이 저하된 사랑채의 생산·작업공간이 거주 공간화하면서 개인생활을 중시하는 도시문화의 전파와 더불어 침실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다양한 실내행위를 갖는 도시적 생활양식과 규모가 큰 현대식 생활가구의 용이한 도입으로 단위침실의 규모가 증대하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의

<표 28> 윗채 면적과 부엌의 유형별 면적



신축한 보급과 더불어 실내화된 목욕탕, 부엌의 기능 및 규모·형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4) 가사 작업공간

가사작업공간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윗채의 부엌으로 그 주위에 식재료 보관장소, 연료저장소, 급배수 설비, 조리과 가열장소, 음식물 보관장소, 식사장소등이 기능적으로 배치되어야 주부의 취사작업 가사노동이 경감될 수 있다.

먼저 부엌과 안마당과의 관계에 착안하여 부엌에의 출입구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재래주택의 경우 안마당에서 직접 부엌으로 출입이 가능한 형(A형), 둘째, 부엌뒤에 뒷방이 있으나 안마당에서 직접 부엌으로 출입이 가능한 형(B형), 셋째, 부엌 정면에 방이 있어서 측면으로만 부엌 출입이 가능한 형(C형), 넷째, 개량주택의 부엌형(D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부엌의 유형별 윗채면적과 부엌면적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 <표 28>이다.

<표 28>을 보면 윗채면적에 관계없이 "A형" 부엌은 6~16.5m², "B형" 부엌은 8~9m², "C형" 부엌은 8.7m², "D형" 부엌은 7.5~8.6m² 범위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다양한 분포를 보인 A형 부엌의 경우 타형의 부엌에 비해 비교적 면적이 큰데 이는 연료저장장소 및 식재료 보관장소로 부엌의 일부공간이 활용⁴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① 급배수 설비

현재 식수로 사용되는 것은 재래주택 개량주택 모두 마을 공동의 간이상수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우물이나 펌프는 주로 허드렛물이나 세탁물로 이용되고 있다. 부엌에 상·하수시설이 있는 주택은 48戶 중 15戶(전체의 31%) 입식의 싱크대를 설치하거나(8/48戶) 또는 시멘트 블럭으로 부엌에 이와 유사한 시설(7/48호)을 하여 주부의 작업동선 단축을 통한 가사노동의 경감을 도모하고 있다.

② 조리·가열·난방

겨울철 난방용 연료사용은 재래·개량주택 모두 나무와 연탄을 병용하는 경우가 절반 가량인 전체 48戶 중 21호(약 44%)이며, 나머지는 나무만을 사용하여 난방하고 있다. 1986년 부터 연탄보일러가 서서히 보급되면서 나무와 연탄을 병용하여 난방하는 주택의 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취사시의 연료로는 나무와 연탄 및 가스레인지를나 석유콘로등이 병용되는 경우가 많고(22/48호), 가스렌지만으로 취사를 하는 경우(8/48호)도 다소 있다. 앞으로 부엌을 입식으로 개조하려는 추세가 가속화될 경우 난방과 취사연료는 분리될 것이 분명하며 그렇게 될 경우 취사는 1987년 부터 보급된 가스렌지⁴⁵⁾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될 것이다.

③ 배선

재래주택에서의 일상의 식기보관은 부엌내 식기장을 이용하는 것이 다수이며(28/48호), 나머지는 작은방(8/48호) 마루(5/48호)등에 식기장을 설치해 놓고 식기를 보관하고 있다.

냉장고는 전체의 73%에 해당하는 농가(35/48호)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냉장고의 위치는 마루(16/48호), 부엌(9/48호), 큰방(5/48호), 작은방(3/48호), 기타(2/48호)의 순으로 대부분의 주택에서 부엌과 가깝고 외부와의 연결이 용이한 마루에 냉장고를 두고 사용하고 있다. 이는 마루가 추운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식사공간 및 취사에 사용되는 도구의 수납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5) 구조 및 재료사용의 변화

조사지역 주택의 윗채와 아래채등 살림채는 木造架構式의 전통적 구조형식을 고수하고 있다. 중축 부분은 시멘트 블럭 또는 시멘트 벽돌이 이용되기도 하지

만 기본적으로는 3樑의 木造架構를 뼈대로 하여 거기에 前後退의 구조가 부가되어 이루어진 것이며, 벽은 흙心壁 또는 두꺼운 담벽 형태로 마감되었다.

지붕의 경우는 1963년경 부터 시행된 지붕개량사업으로 대부분 초가였던 것이 시멘트 기와나 슬레이트로 모두 개량되었다. 지붕의 형태는 팔작지붕과 우진각이 대부분이며 맞배지붕은 부속사동의 간이구조물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그림1 참조) 윗채의 지붕은 팔작지붕형태가 우세하며 그 다음이 우진각 지붕의 순이다. 신축개량주택의 경우도 1호만 콘크리트 평지붕으로 처리했을 뿐 나머지 5호는 모두 시멘트기와 또는 슬레이트 팔작지붕으로 축조되어 있다. 이는 팔작지붕이 갖는 부유하고 위엄있어 보인다는 인식이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창호의 사용은 부엌의 앞·뒷문은 쌍여닫이 판장문이 압도적이고 큰방이나 작은방의 앞쪽은 쌍여닫이의 락살문(작은방은 외여닫이 락살문으로된 경우도 많음), 옆이나 뒷쪽은 외여닫이 락살문이 일반적이다. 개량·개조주택의 경우 외기에 면하는 쪽은 알루미늄 새시창, 실내쪽은 목재창의 이중창으로 처리되어 기밀성을 높이고 있다.

방바닥은 대부분 내구성이 뛰어나고 청소가 용이한 비닐장판을 이용하고 있으며, 종이 장판지를 이용한 경우는 거의 없다.

IV. 결론 및 요약

본 연구는 농촌의 의·식·주생활 양식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농촌생활 개선의 기초 자료로 삼고자 경남 밀양군 부북면 대항 1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를 의·식·주생활 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의생활 : 농촌주부들의 일반적인 의생활관은 패션정보, 유행 등에 무관하며, 오래된 옷을 손질해서 착용하고 캐주얼웨어를 선호하고 있어 경제적이고 활동적인 생활면을 보여주고 있다.

의복구매에 있어서는 비계획적이며, 의복비는 대단히 적을 뿐 아니라 구입시 문제점으로 가격을 들고 있어 어려운 농촌경제 사정을 알 수 있다.

세탁은 섬유에 손상을 많이 주는 방망이와 빨래판을 사용하고, 섬유를 변형시키고 탈수효과가 적은 비

틀어 짜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어 탈수효과를 높일 수 있는 원심탈수기의 보급이 요망된다. 또한, 전문 드라이클리닝점의 부재, 가격, 인식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의복을 물세탁하고, 피로를 회복시키고 외관을 정비하는 다림질을 전혀 하지 않고 착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의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의복관리에 대한 교육과 계몽이 요구된다.

2. 식생활 : 총 32가구를 대상으로 실측 및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체위는 성인의 경우 신장과 체중이 모두 한국인 평균에 미달되었다.

1일 1인당 총식품섭취량은 1170.6g이었고, 지방과 칼슘을 제외한 모든 영양소의 섭취량이 권장량을 초과하였으나, 식품섭취량의 90.3%가 식물성 식품이고 또한 1가구 1일 평균 섭취식품수가 11.9가지로 다양하지 못하여 영양소의 질적인 면의 부족을 나타내었다.

영양지식의 인지도와 정확도, 점수등은 대체로 낮은 경향이었으나, 식습관 점수는 그보다 더욱 낮아 식습관 태도의 변화를 위한 영양교육 및 여건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농촌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책임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양교육을 통해 좋은 식습관 태도의 형성을 도모하고, 농촌의 경제적 어려움과 식품구입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영양가가 높은, 다양한 식품의 자가생산 방안을 모색함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3. 주생활 : 조사지역의 가장 보편적인 배치형태는 "ㄱ자형(37.5%)과 "ㄷ자형(31.2%)이다. 윗채의 평면은 정면 3~4칸의 前後退집으로 구성된 것이 가장 많으며(69%), 6戶의 개량주택은 내무부 표준주택안 "15 라"형을 임의로 변경하여 건축한 것이다.

각棟별 공간이용행태를 살펴보면 부엌의 경우 난방과 취사겸용의 재래식 부엌에서 싱크를 설치한 임식 부엌형태로 변하고 있으며, 윗채의 큰방은 주생활의 중심적 공간으로 가장 부부의 취침 및 진가족의 식사·가사·단란·접객등의 일상행위가 이루어지며, 작은방은 자녀 또는 젊은 부부의 생활공간으로 이용된다. 뒷방은 부엌의 보조실로서 취사도구와 식료품의 보관 및 조리하는 공간으로 이용된다.

조사지역의 주택은 전통민가형(재래형), 개조형, 신축형으로의 평면의 형태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

며, 윗채의 경우 부엌, 큰방, 작은방등의 실 면적 확장과 다용도실의 증설 및 마루의 거실화가 이루어지고 있다(46%).

농촌주거는 무엇보다 구조와 설비의 과학화와 근대화를 통한 주거의 질적향상이 시급하며 이를 위하여 주택의 형태별, 계층별 住要求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이광규, 문화 인류학의 세계, 서울대 출판부, 1980, 33-34.
2. Ryan, M.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Y.: Holt Rinehart & Winston Inc., 1966, 148-150.
3. 김동기, 현대 마케팅 원론, 박 영사, 155.
4. Bonaker, D.L. "A study of Fashion, Interest and Clothing Selection Motives". Home Economics Research Abstracts. 1970.
5. Anspach, K. The Way of Fashion. Iowa State Press, 1967, 147-149.
6. Horton, M.J. The Second Skin. 2nd ed. Houghton Mifflin Co. 1975. 436.
7. Horton, S.M. "Clothing Buying Habits of College Women and the Significance of Race as Determinants of Buying Behavior". Home Economics Research Abstracts. 1976.
8. 신상욱, 도시주부의 의생활 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14 : 3, 1976, 879-889.
9. 남상우 외 1인, 여자중·고등학생의 의복생활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26 : 2, 1988, 40-47.
10. 최창욱, 도시주부의 의생활관리태도, 대한 가정학회지, 13 : 4, 1979, 1-17.
11. 이정우 외 1인, 도시가정의 세탁관리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21 : 3, 1983, 87-96.
12. 이춘계, 도시민의 의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11 : 3, 1973, 16-29.
13. 아춘계, 도시민의 의생활 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11 : 3, 1973, 262-275.
14. 양남순, 제주도 여성의 의생활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14 : 4, 1976, 955-968.
15. 박우미, 남녀고등학생의 의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8 : 1, 1984, 75-84.
16. 이인선 외 1인, 농촌아동들의 의생활실태조사, 부학, 47.

17. 박찬부, 농가 의생활의 과학화를 위한 조사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14 : 2, 1976, 771-784.
18. 이차옥, 우리나라 도시주부의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실증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4 : 2, 1876, 771-784.
19. 서영숙, 피복재료관리, 형설출판사, 1983, 280.
20. 김성연 외 1인, 피복관리학, 교문사, 1979, 193.
21. Obert J.C., Community Nutrition 2nd ed. John Wiley & Sons. NY. 1986.
22. 모수미, 채범석, 지역사회 영양학, 한국방송통신대학, 1983, 94-126.
23. 이양자, 지역사회 영양과 건강, 한국영양학회지, 21 : 6, 1988, 369.
24. 채범석, 사람의 영양학, 아카데미서적, 1988, 115-126.
25. 백대홍, 전세열, 김천호, 영양학 실험, 수학사, 1989, 265-281.
26. 박명운, 우리나라 식생활 변화와 건강대책, 한국영양학회지, 21 : 3, 1988, 146.
27. 안인숙, 이영미, 문수재, 중년기 여성의 식생활 행동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 : 1, 1988, 43.
28. 關千代子, 岩瀬靖彦, 君羅滿, 富岡孝, 赤羽正之, 五島孜郎, 섭취식품수와 영양소등 섭취량에 관한 고찰, 營養學雜誌, 46 : 4, 1988, 163.
29. 최경자, 서울 시내 여고생들의 환경과 영양지식이 영양섭취실태에 미치는 영향, 이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30. 최윤정, 유치원부모의 영양지식과 태도에 관한 조사, 한국영양학회지, 15 : 3, 1982, 181.
31. 김화영, 대학생의 영양지식과 식습관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17 : 3, 1984, 178.
32. 김보혜, 신동순, 미취학 아동의 영양섭취실태 및 환경적 영양요인의 조사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 : 1, 1988, 73.
33. 이일하, 이미애, 서울시내 여자중학생들의 성장발육과 영양섭취실태 및 환경요인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1 : 1, 1983, 37.
34. E.S. Appright. H.M. Fox. B.A. Fryer. G.H. Lan-kin & V.M. Virian. Nutruition Knowledge and Attitudes of Mothers, *J. Home Ec.*, 62, 1970, 327.
35. A. Erindengal. Dianne Chandler & Katn Baghurst. Knowledge and Belief Nutrition, *Am. J. Clin. Nutr.*, 32, 1971, 441.
36. 이희숙, 장유경, 부분들의 영양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영양학회지, 18 : 2, 1985, 90.
37. 농촌영양개선 연구원, 식품성분표(제3개정판), 농촌진흥청, 1986.
38. 이재우, 농가주택, 건우사, 1986, 60.
39. 이상정, 경남지역 전통농촌 주택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4 : 1, 1988, 139-140. [이러한 결과는 서부경남지역 농촌주택을 연구해서 “ㄷ자형”(59.8%), “ㄱ자형”(18.3%) “ㄹ자형”(14.6%) 순으로 나타난 것과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ㄷ자형”과 “ㄱ자형” 배치 형태가 주된 것이라는 점은 공통된다.]
40. 이상정, 앞논문, 141, (서부 경남지역의 보편적인 농촌 주거는 “부엌+방+방”의 3간형 평면으로 이곳과 유사하나 4간형 주택에 마루가 없는 것이 다른점이라 하겠다.)
41. 박경옥, 농촌 개량주택의 평면구성에 관한 연구 (I),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3 : 3, 1987, 117.
42. 강영환, 한국농촌 주거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 학회논문집 3 : 6, 1987, 50.
43. 강영환, 앞논문, 53.
44. 박경옥, 농촌개량주택의 평면구성에 관한 연구 (II), 대한 건축학회 논문 보고집 4 : 1, 1988, 183.
45. 이장 장종락(40세) 면담, 1989, 10.12.